



소그룹 나눔 교재: [말김의 약속]

성경 본문: 시편 55:22

중심 요절: "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"



마음 열기 (Ice Breaking)

1. '조수석 남편 증후군' 이야기처럼, 나는 누군가에게 일의 주도권을 맡겼을 때 불안해서 나도 모르게 참견했던 경험이 있나요? 함께 웃으며 나누어 봅시다.



말씀 나누기 (Word)

2. 오늘 설교는 우리가 하나님께 세 가지를 맡겨야 한다고 강조합니다. 각각의 의미를 되새기며 질문에 답해 보세요.

- 첫째: 우리의 앞길을 맡겨야 합니다 (시 37:5-6)
 - 인생의 배를 움직이는 분은 결국 '하나님의 손'입니다.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 답답했던 적이 있었나요?
- 둘째: 우리의 염려를 맡겨야 합니다 (벧전 5:7)
 - 염려는 기름만 태우는 인생의 공회전과 같습니다. 요즘 내 마음을 소모시키고 있는 가장 큰 염려는 무엇인가요?
- 셋째: 우리의 짐을 맡겨야 합니다 (시 55:22)
 - '맡기다(살라크)'는 '내던지다'라는 뜻입니다.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시원하게 내던져야 할 무거운 책임감의 가방은 무엇인가요?



깊이 생각하기 (Deep Thinking)

3. "귀중품은 카운터에 맡기세요.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

않습니다." 이 문구를 우리 신앙에 적용해 봅시다.

- **3-1. [말김의 정의]** 목욕탕 카운터에 귀중품을 맡길 때는 '분실의 걱정'도 함께 넘겨줍니다. 나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후에도 여전히 그 문제를 내 주머니에 넣고 불안해하고 있지는 않나요? '맡겼다'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'상담'만 하고 다시 가져온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.
- **3-2. [책임의 한계]** "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."라는 문구처럼, 내 인생의 특정 영역(자녀, 재정, 건강 등)을 끝까지 내가 책임지려 할 때 겪었던 한계나 영적 피로감은 무엇이었나요?
- **3-3. [전적인 신뢰]** 우리가 선뜻 맡기지 못하는 이유는 '하나님의 운전 스타일'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.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완전히 넘겨드리기 위해 나에게 가장 필요한 '믿음의 결단'은 무엇인가요?

삶으로 살기 (Action)

4. 이번 한 주간 '하나님께 운전대 맡기기 훈련'을 위해 구체적으로 실천할 행동을 적어 봅시다.

- 예: 불안할 때마다 "하나님, 살라크(내던집니다)!"라고 외치기.
- 예: 내 힘으로 해결하려던 문제 하나를 정해 중보 기도 부탁하기.

함께 기도하기 (Prayer)

- 무사고 베테랑 운전자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게 하소서.
-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, 모든 염려의 짐을 주님 앞에 던져버리고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.

함께 부를 찬양: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!